

<2012년 4월 20일 자체 금요 기도회 잠언> 4월 8일 잠언

* 중요 잠언이니 기도하면서 여러 번 읽으며 준비하고 불같이 외칠 것.

* 최근 말씀 방향에 따라 전초해 주고, 잠언을 읽지만 말고 설교하듯이 심정으로 외쳐 주되 또박또박 전해 주고, 반복할 잠언은 반복해 주면서 이해시켜 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메시지 전하면서 뜨겁게 기도로 이어 가기 바랍니다. (잠언을 읽어 줄 때는 굳이 번호를 일일이 말해 주면서 전하지 않아도 되지만, 각 잠언이 구분되면서도 한 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1. 지구 세상 작은 나라가 흔들리도록 흔들어도 사람들은 죽음의 잠을 깨지 못한다.
2. 자기 직업대로 복음의 그물을 던져 생명들을 구원하여라.
3. 주님은 “나를 위해 사랑하며 살아라.” 까지만 말씀하시지, “스타 되어라.” 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다.
4. 성자 예수님이 오고 가도 눈 한 번도 깜빡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 눈도 봉사요, 느낌도 죽은 자요, 기름이 없는 처녀들이 아니냐.
5. 가을이 됐어도 감나무에서 가장 먼저 익는 감이 있다. 감나무에 열린 감들이 모두 다 익기까지 기다렸다가 따는 것이 아니라 익는 대로 따고 거둔다. 휴거도 그러하다. (이 땅에서 육의 행실을 통해서 신부의 형체로 갖춘 영들을 차례대로 거둬들여 따로 모은다. 그리고 천사장이 나팔 부는 성자의 재림의 그 날에는 미리 거둬 놓은 영들만 하늘나라로 데리고 간다.)

6. 주님을 맞는 것은 각자 맞아야 되니, 평소에 각자 개인이 말씀을 듣고 행하며 주님을 맞도록 준비해야 된다. 옷을 입고 단장하듯이, 자기 의 행실은 자기가 해야 된다.
7. 주님도 우리를 맞고, 우리도 주님을 맞는다. 같이 맞는 것이다.
8. 천사장이 나팔 부는 재림의 날에 주님을 맞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매일 준비하며 주님을 맞아라. 그래야 천사장이 나팔 부는 재림 때도 주님을 맞는다.
9. 신랑의 취향에 맞게 단장하여라.
10. 혼자 단장하면 신랑 되신 성자 예수님 마음에 안 든다. 주님께 기도하며 묻고 깨닫고 행하면서 단장하여라.
11. 주님께 계시를 받고 주님과 대화한다고 해서 주님을 맞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다.
12. 온전해야 주님을 맞은 것이다.
13. 애인을 만날 때도 전화로 만나는 것과, 몸이 만나서 한집에서 같이 대화하며 사는 것이 다르다. 주님을 맞은 자는 주님과 같이 산다.
14. 주님의 뜻을 깨닫고 행함으로 ‘미(美)’가 좌우된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요, 주님만 바라보는 자요,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행하는 자요, 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전한 시대 복음을 외쳐 증거하는 자다. 이런 자들은 미를 갖춘 아름다운 자로서 주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다.

15. (영계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다.) 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외쳐 봐서 알지만, 조은 부흥강사는 목숨을 걸고 외칩니다. 그의 말을 들어 보니 섭리사의 방향을 알 수 있고, 이 시대 성자의 육이 되는 선생님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16. 주를 원망하는 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다.
17.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죄에서 벗어난다.
18.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고로 우리는 그의 뜻대로 쓰여지고, 주의 마음대로 쓰여져야 된다.
19. 의무감으로 하는 사명은 모두 버려야 된다. (진정으로 깨닫고 행하여라. 사랑으로 행하여라. 그래야 온전히 변화된다.)
20. 행함으로 가르쳐라.
21. 가르치고 끝나는 자는 이론자다. 배운 자가 행하도록, 가르치는 자도 같이 행하며 가르쳐라.
22. 진정으로 깨닫고 행하게 하는 것이 큰 가르침이다.
23. 세상은 ‘선과 악’ 이분법의 세계다. 사탄은 다양성으로 기교(機巧)하게 악을 갖추고 있다. 고로 선과 악을 쪼개야 된다.
24. 자신이 선도 악도 확실히 쪼개야 된다. 안 쪼개고 행하면 악의 일을 하여 사탄의 일을 해 주게 된다.

25. 사탄은 ‘자기 의지’ , 혹은 ‘자기 개성’ 이라는 말로 끼어서 들어와 행한다. 사탄은 사사건건 끼어서 행하니, 사탄을 알고 수시로 기도하여 사탄을 없애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 행하여라.
26.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두 사탄이 가입하는 악이다.
27. 타인에 의해 인성에 젖어서 행하면 역시 악행이다.
28. 나태함, 게으름, 차원을 높여 변화되지 않는 것, 사망권에서 행하는 것 역시 악이다.
29. 선하지 않은 행위는 모두 악에 속한 행위다.
30. 선을 신경 쓰지 않고 악에 동조하는 것도 역시 악이다.
31. 사탄은 자기 것인 악을 행하면 반박하지 않고 좋아서 그냥 놔둔다.
32.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얼마든지 사탄을 멸할 수 있다.
33. 사탄 수는 ‘666’ 이다. ‘6’ 을 한 번 받은 자는 사탄이 점찍어 놓은 자이고, ‘66’ 을 두 번 받은 자는 사탄이 같이 살려고 약혼한 자와 같고, ‘666’ 을 세 번 받은 자는 사탄과 결혼한 자와 같다. 알아서 빠져나와라. 사탄과 같이 살다가 빠져나온 자들도 있다. 시대의 중심자를 찾고 그와 같이 하면 사탄에게서 빠져나온다. 기적이다.
34. (주 편) 성약역사 완성급 역사는 전능하신 신의 대상체를 만드는 역사다.

35. (주 편) 섭리사에 온 너희들이 인간의 본성을 모두 버리고 삼위일체의 마지막 최후 역사를 복직해 줘야 된다.
36. (주 편) 섭리사가 회복되는 만큼 천주 역사의 운명이 결정된다.
37. (주 편) 섭리인들이 선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지 못하면 큰 일 난다. 섭리역사는 6000년 구원역사의 운명이다. 모두 온전히 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뤄야 된다. 이루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웅장한 성약 성을 천국에서 인계받는다.
38. (주 편) 섭리사에서 나가는 자들은 자신이 회복되지 않음으로 기대가 어긋나 나가는 것이다.
39. (주 편) 너희 각자는 인류 역사의 대표다. 최고로 발전시키고, 수준을 높이고, 가치를 알아라. 선생의 가치를 알아야 그를 따라 산다.
40. (주 편) 이 시대에 나 성자의 육으로 쓰는 사명자로 인하여 때가 되어 천국 문이 열렸다. 그로 인하여 따르는 제자들도 천국 견학을 하고 천국을 증거하게 한 것이다.
41. (주 편) 섭리인 말고도 천국을 견학하고 와서 책을 쓴 자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방계의 신앙인들이라서 천국을 완전히 허락하여 보여주지 못한다. 사명적으로도 완전히 허락할 수 없다. 그들은 시대의 선지자라고 할 수 없고, 먼저 조금 아는 단계다.
42. (주 편) 나의 재림역사를 맞은 자들에게만 천국 견학이 허락된다.
43. (주 편) 이 시대 사명자로부터 천국 견학이 정식으로 허락되었다.

44. (주 편) 섭리인들에게 천국 견학을 허락하여 종전 구원역사의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 누구보다도 천국을 많이 보고 와서 증거하게 한 것은 섭리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시대에 나 성자가 보낸 자와 섭리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알라는 것이다. 고로 나 성자가 그 비밀의 천국 이곳저곳을 견학시킨 것이다.
45. 세상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조건을 세운 자는 천국에 세상 건물을 상징하여 건물을 지어 놓았다.
46. 천국에 가 보면 월명동의 원본이 엄청나게 크게 있다.
47. 주님의 사랑에 미쳐야 사랑에 불이 붙는다.
48. 주님 사랑을 연구할수록 더 색다른 것이 보인다.
49. 왜 노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주님을 불러라. 대답이 없어도 주님을 부르면 네 공적이 빛난다.
50.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남자 여자가 상관없다. 주님과의 사랑은 세상 처럼 이성 짝짓기 사랑이 아니다. 주님과의 사랑은 뇌 사랑이라서 남자도 여자도 선생같이 주님을 애인같이 사랑하게 된다.
51. 기도할 때는 몸 자세보다 정신 자세다.
52. 꿈에서나 기도 중에 주님께 받은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니 늘 기도 하며 씨 먹어라.

53. ‘사랑’은 변화다. 부활이다. 휴거다. 휴거된 자는 사랑의 완성자다.
54. 사탄에게 마음 뺏긴 자는 마음 고통이 온다.
55. 세상에서 자기가 행하는 것에 따라 영의 세계에 있는 자기 집이 좋게, 혹은 나쁘게 변한다.
56. 인생들은 착각 속에 울고 웃으며 살아간다. 얻지도 못할 것에 희망이 불타 살아간다.
57. 사람들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건다. 그러나 얻으면 곧 가치를 상실하고, 또 다른 것을 얻으려 쫓는다. 차라리 얻은 것을 귀히 볼 때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을 때 더욱 기뻐할 것이다. 이러한 삶은 참으로 헛된 육적인 삶이다.
58. 돈도, 아름다운 여자도 모두 던져 버리고 오직 천국을 위해 살아라. 이 말은 천국에 가서 사는 땅의 경험자 솔로몬의 말이다.
59. (주 편)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모든 것을 누렸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세상에서 살 때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마음대로 누리고 살았다. 그때의 영향으로 인하여 더 좋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그 옷도 찬란하게 빛나지 않는다.
60.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조건을 세워 주셨듯이, 우리도 인류를 대신하여 조건을 세우고 주님의 몸이 되어야 한다.

61.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 있을 때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것은 성자가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 말씀을 전하여 먹인 것을 말한다. 떡과 고기로 비유한 ‘말씀’을 먹인 것이다. 열두 광주리는 열두 제자들의 말씀의 그릇을 비유한 것이다. 남은 떡 조각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다양하게 전한 것을 말한다.
62. 모르면 표적이며 신비요, 알면 현실이다.
63. 주님은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자기가 처한 이야기만 한다. 사랑 이야기를 해야 믿음 이야기도 풀리고, 축복 이야기도 풀린다.
64. 사람들은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더욱 이상적으로 좇으려 한다. 자기를 버려라. 직업보다 자기 생각과 주관을 비우고 버리는 것이 더 크고,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에 임하신다.
65. 자기 생각을 못 버리면, 자기 길만 애를 태우며 가게 된다.
66. 똑똑한 자보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더 낫고, 그들이 섭리사에 남아 있다. 똑똑하다는 자가 누구냐. 육적으로 똑똑한 만큼 깊이 기도하여 주님께 배우고 내놓을 것이 있어야 똑똑한 자다.
67. 섭리사에서 육적으로만 똑똑하다는 자들은 다 나갔다. 마음이 깨끗하고 영적으로 똑똑한 자들만 남아 있다.
68. 깨끗하고 맑은 영혼이 되어라.
69. 주님의 사랑의 군사가 되어라. 최고로 강한 군사다.

70. (주 편) 내가 겪는 대로 나를 기억하고 선생을 기억하여라. 마음에 깊이 느껴라.
71. (주 편) 자기 처한 환경에서 겪으면서 늘 감사하고 사연을 내게 말하여라.
72. 우리는 작지만 주님 때문에 큰 것이다. 가치를 깨달아라.
73. 하늘은 영, 땅은 육이다. 성자 예수님은 영, 선생은 육이다. 선생은 영, 따르는 자들은 육이다.
74.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것이 큰 비밀이다. 영과 육이 하나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 (곧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성자와 보낸 자가 하나 되고, 보낸 자와 따르는 자들이 하나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
75. 재림은 완성이다.
76. 성자 예수님은 마지막 재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77.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에 따라 천국이 더 건설되기도 한다.
78. 이 세상에서 어떤 개인이 공적을 세우면 천국에서 그를 위해 집과 건물들이 건설된다. 세상에서 안 하면 천국에서도 건설되지 않는다.
79.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지 않고 서로 심정의 싸움을 하고 섭리사를 나가니, 주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배신을 맛보신다. 제발 서로 화목하여라. 화목하지 못하여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책임져라.

80. 형제들끼리 부딪혀 왜 나가는가? 서로 가슴 아프게 하고 상처 되는 말들을 하기 때문이다. 상처 주며 대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니 그리하는 것이다. 마음 상하면 선생에게 물어라. 그러면 화복이 전환된다.
81. (주 편)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그 시대 천국이다.
82. (주 편) 나 성자 예수가 보낸 자, 곧 나의 육이 그 시대의 교과서다. 생명이다. 길이다.
83. 보화가 감춰진 밭이 있다. 어떤 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러나 어떤 자는 거저 줘도 밭을 소유하지 않으니 소경이다. 밭에 보화가 감춰진 것을 뉘 알 자 있으랴. 사는 자만 안다. 보화가 감춰진 ‘밭’은 시대 사명자다.
84. 하늘이 보낸 시대의 구원자는 모두 살라고 왔건만, 자기를 죽이는데 쓴다.
85. 영은 영으로 전하고, 육은 육으로 전한다.
86. 먹을 것이 없으면 나가서 별면서 섭리를 뛰고, 먹을 것이 있으면 섭리를 뛰자.
87. 생명길을 가는 것은 자기 행위와 공적에 따라 좌우된다.
88. 사탄은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을 끄려 다닌다. 절대 주님과와의 사랑에 불이 붙으면 아무도 못 끈다.

89.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말이 전해진다.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권이다.
90. 휴거되지 못할 자라도 기도를 잘하면, 마치 말로 천 냥 빚을 갚듯이 휴거가 좌우되기도 한다.
91. 하나님과 주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깊이 기억하신다.
92. 사랑과 기도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권이다.
93. 하나님과 주님과 소통할 때 감동, 깨달음, 심정, 은혜로 소통한다. 이 모두가 너무 큰 것이다. 음성으로의 소통은 극히 어렵다. 하나님과 주님은 영이요, 우리는 육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자들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다. 여건에 따라 행하신다.
94.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였듯이, 우리의 ‘기도’라는 말로 구원이 창조되고, 변화되고, 하늘나라와 땅에 없는 것이 생기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95. (주 편) 이 시대 나의 육이며 시대의 중심자인 선생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다. 이는 그를 통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생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 ‘너’라는 생명나무에 흘러가 영적으로 마른 땅을 적셔 준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호수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선생이 기도하여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도 그에게는 못 간다. 고로 선생이 기도한 것이라도 얻지 못한다.

96. 기도하고 행하면 즉시 줄이 연결되어 영이 더욱 변화되어 빛난다. 확인할 것도 없다. 선생이 늘 영계에서 보고 안다. 영들이 이곳에 오니 잘 안다.

97. 기도하고 행하고 시험에서 이긴 자를 영계에서 보면, 실제로 그 영이 사탄과 겨루어 이긴다. 은하수들도, 중고등부들도 어리지만 절대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사탄이 10000명이 와도 다 이긴다. 마치 모기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모기가 10만 마리가 날아다녀도 전혀 물리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기도하고 믿고 행하여라. (그림)

98. 시대의 중심자는 핵이다. 핵에 들어가야 된다.